

# “참나 깨달아야 인류평화 가능”

만산이 푸르름으로 젖어가는 곡우(穀雨)에 남도당 백양사에서는 재적승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사전에 다례를 올린다. 4월20일, 금년 곡우에 1백200여명의 문중스님들이 다례를 올리고 신중총회를 열었다. 조계종에서는 5번째로 개설된 백양사 고불총림의 방장을 선출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백양사 수산스님이 “최고의 선승이자 백양사 조실인 서용스님을 방장으로 추대한다”고 제언하고 참석한 모든 대중이 만장일치로 서용스님이 고불총림 초대방장으로 추대되었다. 백양사 운문선원에서 서용스님을 만났다. <편집자 주>

## 백양사 고불총림 초대방장 서용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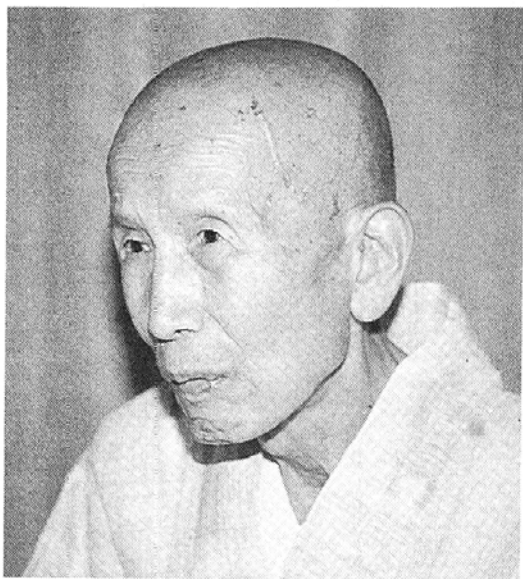
—먼저 고불총림개설과 방장추대를 축하드립니다. 고불총림은 일제시대에 만암스님이 이곳 백양사에 개설했으나 6.25때 파괴되어 맥이 끊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총림이 복원되고 초대방장으로 추대되어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까.

▲덕이 없는 사람이 중책을 맡게되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무엇보다도 만암스님의 원력을 다시 있게 되고 백양사가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반갑고 감사할 뿐입니다.

불교세가 약한 호남불교를 증흥시키겠다는 의지도 강했던 것입니다.

만암스님은 생전에 부처님처럼 살았습니다. 편해서야 어찌 수행이 되었겠느냐며 이판스님은 오직 공부만 하도록 하고 사판스님은 절지키며 포교에 앞장서도록 했습니다. 당시 고불총림 수좌들의 계행과 시간지키는 일은 전국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요즘은 한국불교뿐 아니라 전인류에게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로 생각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안은 없는지요.



▷백양사 고불총림 초대방장으로 추대된 서용스님은 조사선종을 일으키는 것이 원력이라며 참사람운동을 통해 새로운 인류역사를 창조하고자 말했다.

# 현대인 정신읽고 사는 물질과학의 노예 “조사선 살리는 선원중심 총림운영 역점”

고불총림은 인간의 본성을 불필요로 해결하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사실 여법히 수행하면 모든 일이 저절로 잘 됩니다. 불필요를 바탕으로 사찰을 운영하고 사회를 운영할 때 세계평화는 이룩될 것입니다.

—고불총림을 처음 개설한 만암스님의 발원은 무엇이었습니다.

▲50여년전이나 지금이나 한국불교는 여전히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조사선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만암스님께서 위기의 한국불교를 바로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지역 여러 사찰을 묶어 고불총림을 개설했습니다.

▲르네상스이후 공업시대로 접어들면서 물질적으로는 풍부하지만 물질에 끌려다니는(정신)을 잃고 사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과학문명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을 기계로 보게되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인간과 인간의 질서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불교는 우주와 인간이 둘이 아닌 하나로, 개체가 분명합니다.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가 서로 존중하며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래자리인 참나를 깨닫는 것으로 참선만이 해 낼 수 있습니다.

—스님은 참나를 찾기위한 실천의 일환

으로 오래전부터 ‘참사람운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참사람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과학문명 병폐로 인류가 멸망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보면서 구제의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선(禪), 불교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참사람운동이란 하루에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우리의 좋은 전통인 참선을 실천하고 진리에 순응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확실해오는 아니어도 더 많은 사람이 참선을 통해 참사람이 되자 노력한다면 사회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되며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것입니다.

—불자뿐 아니라 국민적으로도 고불총림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앞으로 고불총림의 승풍을 어떻게 세우나하시겠습니까.

▲조사선종을 일으키는 것이 저의 원력입니다. 조사선이 중국에서 일어나 세계적으로 발전했으나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맥이 끊어졌습니다. 선이리아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마당에 세계적으로 선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불총림은 조사선을 살려 한국 불교뿐 아니라 세계평화의 기틀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행시설을 고루 갖추어 누구나 고불총림에서 수행하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특히 백양사에서는 5년째 <백암록>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암록>은 선을 설파한 것 가운데 으뜸입니다. 앞으로 고불총림에서 <백암록> 강의와 함께 조사선종이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가 창조될 것입니다.

—불자뿐 아니라 국민적으로도 고불총림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앞으로 고불총림의 승풍을 어떻게 세우나하시겠습니까.

▲조사선종을 일으키는 것이 저의 원력입니다. 조사선이 중국에서 일어나 세계적으로 발전했으나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맥이 끊어졌습니다. 선이리아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마당에 세계적으로 선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불총림은 조사선을 살려 한국 불교뿐 아니라 세계평화의 기틀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행시설을 고루 갖추어 누구나 고불총림에서 수행하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특히 백양사에서는 5년째 <백암록>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암록>은 선을 설파한 것 가운데 으뜸입니다. 앞으로 고불총림에서 <백암록> 강의와 함께 조사선종이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백양사=이준엽 기자

# 시론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

“가족은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족을 생각할 때면 으레 갖게 되는 테마이다. 우리는 가족이 늘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만일 한시라도 그렇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 속의 가족을 보자. 그런 가족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가족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의 감정과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장이기도 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절대적인 관계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오직 사랑만 있고 갈등은 없는 가족은 우리의 상상 속의 모습, 즉 신화적인 모습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장벽**

가족 역시 다른 모든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성과 연령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이다. 어쩌면 가족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다면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더 이질적인 집단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가족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함이 없이 자연스러운 사랑의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것이다.

건강한 가족은 이와같은 우리들의 사회를 깨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신화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양분과 물이 필요하듯이 가족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양의 양분과 물을 주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시간과 노력의 투자인 것이다.

우리 부모들은 가난과 궁핍의 환경속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 자식들에게는 부모들이 지나온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불리 먹을 음식도 주었고 피아노도 가르쳤다. 그러나 그런 부모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여유를 가지고 비로소 자식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이미 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식의 모습이 아니었다. 자식들은 부모와 다른 뜻을 입고,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서로가 같은 말을 해도 이렇듯 통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우리 부모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주었지만 정작 자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부모들이 주는 것 이상이었다. 즉 경제적인 충족은 물론이었고 그 위에 자식들이 더 필요로 했던 것은 우리 부모들과의 시간이었다. 우리 부모들은 그들을 위해 시간이라는 자원을 투자하지는 못했다. 돈을 주고 음식을 주었으나, 생

각을 담은 그릇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 부모들은 같은 집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어도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된 것이다.

어떤 학자는 요즘의 가족을 폭풍우에 중심을 못잡고 이리 저리 헤매는 배에다 비유하기도 한다. 모든 가족들이 뿔뿔이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배를 저어 가기 때문에 위기를 견뎌내지 못하고 폭풍우 속에 침몰해 버린다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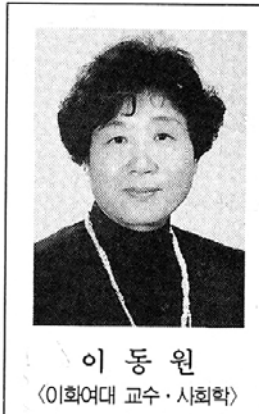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 가족이 건강한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족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족 모두가 함께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가족주기별·단계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여 모든 구성원이 그 계획안에서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가족은 항상 갈등을 내재하고 있기 마련이므로 갈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하여 가족 모두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가족구성원 가운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복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가족의 신화를 벗어나서 공동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 비로소 그 가족은 건강해질 것이다.

끝으로 가족·문화화해가 정한 ‘건강한 가족을 위한 다짐’을 소개한다.

**‘건강한 가족’을 위한 지침**

건강한 가족이란 서로 나누는 삶 △ 서로 이해하는 삶 △ 서로 대화하는 삶 △ 서로 이해하는 삶 △ 자신을 완성하는 삶 △ 이웃과 함께하는 삶 △ 사회로 열리는 삶을 의미한다. 이것은 가족구성원 모두가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어야 하며, 서로 아끼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가족 속에서 자신의 개성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서로가 도와 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가족만을 위한 가족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밝고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해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가족의 삶을 사회에 열어놓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가족의 건강도, 우리사회의 건강도, 나아가 이 세계의 건강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동원 <이화여대 교수·사회학>

# “분종·창종 가는 길 아니다”

1면에서 계속

선학원 이사 11명중 9명의 스님이 일괄 제직원을 제출한데 대해 교계는 조계종과 선학원 분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제직원을 제출한 법진·성열·자민스님은 ‘분종’이나 ‘창종’이 바람직한 해답이 아니라고 역설한다.

“양측 모두 삼보정재 보존을 위해 상호연구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학원 이사스님들은 종단이 내놓은 징계이유 ‘종단재산분할 조장’에 대해 이같이 입을 모았다. 그럼 선학원측은 왜 대화의 장

에서 나와 막는 길을 선택했을까.

개혁종단이 개정 종헌에 법인 관련조항(총헌 9조 3, 4항)을 신설하고 정관변경을 요구한 점에 대해 선학원은 삼보정재를 관리하는 틀이 달라 행정체계 통합이 쉽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통합’은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시인한다.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를 전제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얽혀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내자는 것이다. 여기서 논쟁은 불가피 할 수밖에 없었다.

조계종이 선학원 운영문제를 속제로 삼은 것은 이미 10여년



▷지난달 24일 선학원 이사 9명이 조계종에 제직원을 제출했다. 한 개혁종단이 구성되면 ‘인제든지 대화에 임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자체신분증’으로 승려증을 대신하겠다는 선학원. 그러나 진정

있다. 진정 ‘분종’과 ‘창종’을 바라지 않는다면 양측은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부처님 오신날이 어디 있는가를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 교계의 시각이다.

# 마음을 청정하게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총괄표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모든 행사가 원만히 회향되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행사명	장소	일시	집행부서
법요식	봉축 법요식	조계사 대웅전	5.24 10시	봉축위원회
경축	1.연등축제	동대문-조계사	5.19 16시	봉축위원회
	2.시정앞 점등식	시정앞 광장	5.14 19시30분	봉축위원회
	3.원각사지 탐방	탐골공원	5.22 19시	봉축위원회
	4.이철수 불교 평화전	서남미술전시관	4.24-5.8	불교방송
	5.북한불교 사진전	평북협강당(조계사건너편)	4.26-5.9	평북협
	6.연꽃 노래전	동국대 중앙당	4.28 13시	서울불청
	7.건강가족 마라톤 대회	목동 청소년회관	5.5 10시	목동 청소년회관
	8.전국어린이 부처님그림 그리기 대회	목아박물관	5.5 10시-16시	목아박물관·월간'불광'
	9.소년·소녀 합창단 연주회	국립극장 야외음악당	5.4 18시	불교교육 연구원
	10.부처님 오신날 봉축 음악제	KBS홀	5.8 19시	봉은사
기념	11.아동극 '선덕여왕'	동송 아트센터	5.11-5.12	동쪽나라
	12.부모존중경송	국립극장	5.11-12 16시	불광법회
	13.부처님 오신날 기념 백일장	목동청소년회관 및 주변	5.12 10시	목동 청소년회관
	14.시 낭송회	조계사 문화회관	5.12 17시	현대불교문학회
	15.청소년 문화대축제	역도경기장	5.12 14시	포교원
	16.봉축 심포지움	조계사 문화회관	5.16 14시	한국불교사회 연구소
	17.부처님 오신날 학술 세미나	동국대 학술 문화관	5.17 13시30분	동국대 불교문화원
	18.윤이상 불교음악회	동국대 불상당	5.17 17시	동국대
	19.열린음악회	불국사	5.18 17시	KBS
	20.경국사 합창단 발표회	KBS홀	5.18 19시30분	경국사
행사	21.불교 응원대회	조계사 대웅전	5.19 14시-17시	불교 응원인협회
	22.BBS 공개방송	종묘공원	5.19 16시	불교방송
	23.봉축 꽃꽂이전	봉은사(삼성동)	5.19-5.21	한국연화 꽃꽂이회
	24.불교문화 세미나	조계사 문화교육관	5.20-23/14시-19시	문화사업부

내용	행사명	장소	일시	집행부서	
경축	25.만석승 놀이	조계사	5.23 19시	우리마당-조계사청년회	
	26.불교 문화대제전	여의도 광장	5.23-6.1	btN	
	27.정장국토 한마당	조계사	6.1-6.2	문사부 환경교육원	
	28.전방 OP점등식	애기봉	5.2 18시 30분	조계종	
	행사	29.전방 OP점등식	백암, 아산, 백석, 도라, 밀골, 필승, 종각 태동전당대		종단협 군승단
		자비	1.경사로 설치 및 장애물차 시 낭송회	조계사 대웅전	4.20 16시
순의길	2.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하는 부처님 오신날	조계사	5.12 13시	문화사회부	
	3.개달음의 사회화운동 후원의 밤	롯데호텔	5.15 19시	문화사회부	
	4.복지시설 방문		5월중	문화사회부	
	5.탐골공영	탐골공원	5.14 12시	사회복지재단	
	6.일선 군법원 위문품 보내기		4.10-5.24	군불교 진흥회	
	7.불우이웃돕기		봉축기간 5.1-5.31	전국 각 사찰, 총림학교, 신행단체	
	8.북한수재민 돕기모금		봉축기간 5.1-5.31	종단협	
	9.입원환자 '등'선물	각 병원	5월중	병원법당	
	10.경로위안잔치	도선사	5.4	도선사	
	11.노인재조사 위문잔치	청송 김호소	5.7-8	연애인 불자회	
	12.재조사 위문 및 수계식	안양 교도소	5.15	도선사	
	13.경로위안잔치	쌍각봉(상계동)	5.15	홍곡사	
	14.사랑의 편지쓰기	월곡 청소년 센터	5.18 15시	월곡 청소년 센터	
	15.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	목동 청소년회관 교육실	5.18 15시	목동 청소년회관	
	16.현열 캠페인	동대문운동장-조계사입구	5.19 14시/5.24 10시	생명나눔 실천회	

■ 봉축위원회에서 제작 개발한 휘장 및 캐릭터를 상업용으로 무단 사용하게되면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제재를 받게 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장 송월주